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1서 3장 18절)

| 참여교단 ·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기독교한국루터회 | 대한성공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구세군 한국군국 |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02-765-1136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제정하였으며, 제98회 총회(2013년)에서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6월 2일은 환경주일이니 “신음하는 창조세계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에배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기후변화는 지구의 지질학적인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로 연간 10,000종 이상의 생물종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은 터전을 잃고 기후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다음세대는 “미래가 불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공동체로서 교회는 신음하는 창조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그리스도인은 파괴된 세상을 향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시간 싸움입니다. 재난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약한 이들의 삶을 흔들고 있는 기후위기는 결국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파괴되어 가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직시하며 시대를 읽고 변화를 위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작은 생명들의 신음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영성, 시시각각 커지는 위협을 인지하고 창조세계 모든 생명을 향한 책임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생태적 영성’을 갖추는 일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 그리스도인은 기후위기시대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으며 제자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재앙을 막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인간중심의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총체적 구원론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성장 대신에 협력을, 소비 대신에 존재를, 발전 대신에 탄력성을, 중독 대신에 균형을, 과잉 대신에 절제를, 편리 대신에 비전을, 외면 대신에 책임성을, 그리고 자기중심적 두려움 대신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도입니다.

3. 그리스도인은 기후위기시대에 증폭되고 있는 불의에 맞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형태의 불의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증폭되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며 경제적 성장과 풍요로움만을 향해 달려온 결과이며 그 원인제공자와 피해당사자가 명백히 구분되는 차별적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미래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일은 불의합니다. 교회는 작고 약한 이들의 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목소리를 모아 여전히 탄소배출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나라들이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탄소배출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마땅히 저야 할 몫을 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4. 그리스도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요1서 3:18).” 2024년 환경주일 예배의 주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입니다. 전국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존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환경주일 예배를 드려 기후위기를 초래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생명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녹색의 희망으로 온 교회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2024.6.2.

신익상 소장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성공회대학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돌이켜 삶을 변화시켜라

며칠 새 체감 온도 섭씨 62도의 폭염과 하루 300밀리미터의 폭우를 오가는 날씨. 우리 곁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지구 한 켠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3월 중하순, 부활절을 맞기 얼마 전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13명의 사망자와 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 극단적인 날씨 변화 이야기는 기후 위기가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내겐 아직 너무 먼 남의 일 같은 느낌. 머리론 이해가 가고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 삶의 변화가 급박하게 필요하다는 마음은 들지 않는 그런 일. 그런 일이 고난이 깊어지고 부활이 준비되는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념일은 단연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가장 큰 축제일이지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가진 가장 큰 한계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없고, 그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CCM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랫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새 생명 주께 얻었네/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나 서지 못하네 ...". 이 노랫말 속에 십자가 은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절의 의미가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지금의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영원한 생명, 또는 새 생명이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생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는데 말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구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요. 아,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과 새의 개체수가 70% 넘게 줄었습니다. 애통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후위기 시계 또한 생각보다 빠르게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050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돌이켜 삶을 변화시켜라

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막겠다는 세계의 계획은 이루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는 무려 84%를 감축해야 하고요. 하지만, 2050년은커녕 2030년이 되기도 전에 이 마지노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의 생존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극지방에서는 해빙 감소가 곰과 펭귄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후상승은 해수의 온도를 높이고 온실가스의 약 20% 이상은 해수로 들어가 바닷물을 산성화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산호초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양서류도, 꿀벌을 비롯한 곤충도, 심지어 희귀한 여러 식물도 살만한 곳은 줄어들고 생존 조건은 악화해서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위기는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식량부족,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의 확산, 물 부족, 기후난민 발생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심화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세대보다 이후 세대에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또한, 온실가스에 별로 책임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더 우선적이고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지역 간 불평등 문제 또한 일으킵니다. 같은 지

역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이 더 큰 고통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에 공평한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야에서 울려 퍼지던 예수의 복음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턱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킵시다!”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이 도달할 곳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그래서 은혜,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증언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을 죽음으로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돌리는 자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부활을 증언하는 방법은, 기후위기를 몰고 온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를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돌리는 문명을 죽음으로 생명으로 돌리는 문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로서는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젠 거의 모든 사람이 기후위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 앞에서 개인이, 사회가,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렇겠지요. 이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교단들 대부분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돌이켜 삶을 변화시켜라

위원회나 연구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는 일찌감치 환경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가 있어서 필요한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독교 환경운동 단체의 노하우와 교단들이 가진 조직들이 서로 교류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편입니다. 그럴수록 교회의 실천은 신속하고 세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부활의 증인 노릇을 톡톡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 15:20) 이를 본받아 교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돌리는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김준표 목사(손잡는 교회)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생명들을 생각하며
김국진 목사(대안교육기관 산돌학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생각하며
윤태현 목사(제주한울교회)

기후위기와 난개발로 고통받는 창조세계를 생각하며
류순권 목사(타원형 교회)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김준표 목사(손잡는 교회)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소서.

1.5도라는 수치는 깨어있는 시민을 움직이게 했지만, 성장에 집착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하찮은 숫자일 뿐입니다. 지구별의 온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갔고, 우리가 경험했던 사계절의 풍광은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구별은 서서히 뒤틀리며 인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지만 죽음의 종소리에 귀 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용서하소서.

죽음의 행렬에서도 맨 뒤로 빠지는 이들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장마는 쾌적한 고층 아파트에서, 폭염은 뽕뽕한 에어컨 속에서, 지진은 안전 진단받은 견고한 빌딩에서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곧 무너질 모래성 위의 집에서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는 이들을 구원하소서.

죽음의 행렬에서 등 떠밀려 앞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타는 목마름으로 땅을 일구는 농민, 닥쳐오는 재앙보다는 밀려오는 고지서와 맞서는 땀내 나는 노동자,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미로 같은 현실에 갇혀버린 미래세대, 생존을 위해 집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

주님, 포기와 절망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가 되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창조세계의 평화와 안식을 노래하고, 사랑으로 연대하며 죽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소서.
국가 권력과 기업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지 말고 마을마다 생태공화국을 만들게 하소서.

아픈 몸들의 해방과 부활을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생명들을 생각하며

김국진 목사(대안교육기관 산돌학교)

하나님, 저는 암컷 흰코뿔소 파투입니다. 2018년 45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남은 북부흰코뿔소는 엄마와 저, 둘 뿐입니다.

사람들은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 코뿔소를 마구 죽였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저의 사라짐은 우리의 사라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멸절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의 욕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쳐야 할 것이 그치게 하시고 이어져야 할 것이 풍성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죽음을 멸종이라 부를 사람들의 심정이 한 죽음을 향한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의 죽음이 자신들의 멸종과 잇닿은 우리의 멸종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멸종이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라면

그 개발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사소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욕심을 갈무리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터전을 잃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동물들,

그 자리에 뿌리박고 한 걸음도 도망치지 못하는 식물들,

사람의 행패와 기후의 변화로 살아갈 조건과 환경을 잃어가는 생명들을

주여, 붙잡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몇 마디 신조로 사람의 마음 안에 옥여넣고 가두는 사람의 비행이 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열심을 지으신 만물에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생각하며 윤태현 목사(제주한울교회)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시편 146:4)

바닷가 사람들에게는 금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금기는 밥상에서 생선을 절대로 뒤집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힌다’라는 속설 때문입니다. 바닷가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명인 동시에 죽음이기도 합니다.

별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오롯이 자신의 숨에 의지하는 해녀들은 늘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참은 숨만큼의 보상으로 살아갑니다. 해녀들에게 ‘물숨’이라는 단어는 절대 입에 담지 않는 금기어입니다. 정해진 숨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는 순간 바다가 죽음으로 뒤바뀌는 때의 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해녀들은 참는 숨의 길이대로 갈 수 있는 바다가 정해집니다. 전복이 있는 먼바다는 숨이 긴 상군 해녀들만 갈 수 있습니다. 해녀들 숨의 길이는 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바로 주어진 숨의 길이에 순응하는 것이 바다를 대하는 첫 번째 금기입니다.

받은 숨대로 순종하면 바다는 늘 ‘값없는 은총’을 베풁습니다. 제아무리 숨이 차도 해녀들은 결코 산소통을 메지 않습니다. 오늘날만큼 내일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쁜 숨으로 오랜 세월 대물림해온 은총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값이 없다고 내 것인 줄 아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착각을 거두고 ‘물숨’ 되어 가는 바다를 다시 생명의 바다로 돌려야 합니다.

“태초에 받은 숨대로, 평안하냐 물으신 그 날에 주신 숨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숨이 생명의 바다를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기후위기와 난개발로 고통받는 창조세계를 생각하며 류순권 목사 (타원형 교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시편 104:10-12)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창조 세계의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난개발로 파괴되는 산과 숲, 갯벌, 강 등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IPCC가 승인한 6차 평가보고서는 기후 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고 그 추세 또한 가속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활동은 산림을 훼손하며 생물의 다양성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생물 다양성은 사막, 숲, 습지, 산악, 호수, 강, 농경지 등의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생태계 안에서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을 둘러싼 대기, 물, 토양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에서 돌이켜 친환경적인 삶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와 난 개발은 또한 숲 파괴로 이어지고 황폐화 된 숲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에 기후 변화를 더욱 가속하게 될 것입니다. 갯벌은 바다의 오염물질을 정화해 주고 육상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의 완충 기능을 하는 갯벌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며 물의 흐름도 완화하고 저장하며 홍수 등의 자연재해 또한 약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갯벌은 지구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갯벌을 막아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개발업자들의 탐욕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기후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 환경주일 예배자료

환경주일 설교문 최광선 목사 (순천덕신교회)

환경주일 폐제 예식서

환경주일 연합예배 예식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18)

1. 지옥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경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멸종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멸종이 급증하여, 지금은 생명다양성이 파괴되는 대멸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2022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균형을 깨뜨리는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는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달을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기후정상회의에서 그는 한 톤 더 높여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며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

을 향하고 있다고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는 가장 날 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센세니나(Senzenina),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라는 뜻을 지닌 아프리카의 노래 제목입니다. 기후 지옥의 문 앞에서 우리는 “센세니나”를 되뇌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표현할 적당한 말은 “우리 모두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입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상업자본의 환상이 제공하는 장밋빛에 시력을 잃고, 눈부신 풍요를 향한 과도한 욕망이 인류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멀고 귀를 닫은 인류는 더 발전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환각 상태 또는 집단적 광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질서한 애착과 탐욕에 따라 눈먼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극대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최광선 목사 (순천덕신교회)

화시키는 경제, 정치, 종교, 대학 시스템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경제적 번영이 곧 진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무참하게 파괴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우리가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며, 생태적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각상태에서 깨어나,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 사도가 말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요일 3:18)”에서 생태적 희망을 발견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비유 한 자락을 들어보십시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되묻는 예수님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답한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는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쳤다. 얼마 후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치료하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에 들러 보살펴 주었다.

우리는 이 대화와 비유 말씀을 통해 선택과 행동을 요청받습니다.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으면서, 왜 그를 치료하지 않고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친 사람을 돕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질문을 했던 율법교사도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묻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응답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를 해주며 행동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고 말씀합니다.

3.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되기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어력도 없이 죽게 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웃의 개념을 모든 피조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웃의 울타리를 인간종을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로 확장시킬 때 생태적 희망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매 창조의 순간마다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언약 당사자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친밀함으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합니다. 시편기자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공동체(시 24, 104, 148)임을 노래합니다.

요한에게 만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셨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막 1:13)”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킨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

니다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성 제롬이 사자의 발에서 가시를 제거한 이야기와 성 프란시스가 늑대와 친구가 된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신앙에서 “이웃의 범위”가 점점 더 넓은 “타자”로 확장되고, 마침내 다른 종(species)을 포함하여 만물의 일치까지 이름을 보여줍니다.

우리 동양의 그리스도인에게 보다 익숙한 장재의 <서명西銘>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고, 땅의 나의 어머니이다.
나 같은 작은 생명체도 그 가운데서 친밀한 자리를 찾는다.

우주를 채우는 것을 나는 나의 몸으로 여기고
우주를 인도하는 것을 나는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 자매이고,
모든 만물은 나의 동반자이다.”

성경과 전통에서 피조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우리의 이웃임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존재하는 만물을 부모, 형제, 벗이라는 동양의 가르침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좀 더 나아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롬 1:20)”라고 증언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최광선 목사 (순천덕신교회)

이런 가르침에 따를 때,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은 신음하는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파괴되는 산림, 독성 물질로 오염되는 바다,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생명종, 주거지 파괴로 인해 난민의 길을 떠나는 기후 난민들입니다.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를 살해하는 신성모독이요,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괴롭히며 죽이는 자해적 행위입니다.

4. 피조물의 이웃이 되어준 이들

신음하는 피조물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물음 앞에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행함으로 생태적 희망의 길을 걷습니다. 말과 허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나무를 심는 일이요, 둘째는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은총의 숲>과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가 실천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몽골 사막 한 가운데 직접 삼림을 조성하는 <은총의 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총의 숲에는 비술 나무, 포플러, 짝드, 사와, 비타민 나무 등 현지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25,0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묘장, 관리동, 울타리, 관정 등의 기반 시설과 최근 건립한 생태교육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은총의 숲을 기반으로 임농업교육과 기후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조성된 몽골 은총의 숲은 생태임농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생태환경 교육의 공간으로써,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선교의 모범 사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둘째, 생태적 희망은 행동에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에서 학교파업을 이끌었고,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후위기에 저항하여 행동하는 활동가입니다. 툰베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을 시작했고,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툰베리와 함께 전 세계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Z세대들은 기후위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들의 미래가 지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툰베리는 2018년 12월 COP24 연설에서 “저는 2078년에 75세가 됩니다. 만약 내게 자녀가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최광선 목사 (순천덕신교회)

그들은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당신에게 아직 행동 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물어 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만 여전히 자녀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사도의 외침과 같습니다.

5. 결단: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상 시인은 노년에 “두 이레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뜬다”하면서 눈 뜨니 세상은 은총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창조의 경이로움을 노래합니다. 그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도 눈 뜨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경이로운 세상을 눈 뜨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은총의 숲처럼, 그리고 튼베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린 기후지옥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아름다운” 지구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생태적 헌신을 해야 합니다. 시인 오스카 햄머스타인은 “사랑은”에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종과 노래에 비유하여 읊습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선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종은 울리기 전에는 단지 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종소리를 낼 때 종으로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도 묻혀 있다면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래는 부르고 연주할 때 음악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피조세계에 대한 아무리 큰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당신의 진실한 손과 발 그리고 온 몸으로 나무를 심고, 생태적 전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생태위기 시대를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생태적 희망이 되십시오.



✧ 노래/Songs

23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세상이여.

✧ 시편/Psalm 104

69 할렐루야 20.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서 맡으신 분이 시편을 읽고, 시작과 시편낭독 사이에 노래를 함께 합니다.)

- †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 †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 †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목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 복음/Gospel 누가복음 12:27~28.

- †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 †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 노래/Songs

5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이름.

✧ 침묵/Silence

✧ 창조세계를 위한기도/Intercessions

55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순서 말으신 분이 시편을 읽고, 시작과 시편낭독 사이에 노래를 함께 합니다.)

- †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주 안에 계시며, 당신의 가장 작은 피조물 가운데도 계시오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다정함으로 감싸 주소서.
- †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 † 사랑하는 하나님, 기후위기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간직하게 하소서.
- †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긴밀히 결합됨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 † 사랑하는 하나님, 지구를 돌보기 위한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 † 창조자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뒷받침해 주소서.
- † 주님은 삶의 샘물이시니, 여기 모인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 주기도문(주님의 기도)/Our Father

✧ 마침기도/Prayer (알로이스 수사의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 때,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 당신에게서 오는 모든 것,
 당신의 자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모든 창조세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만물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세계 안에서 평화를 간직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노래/Songs

119 저 너머 계신 당신.

저 너머 계신 당신 아무도 알 수 없어, 숨쉬는 모든 만물이 애타게 주를 그리나이다.

51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물, 사랑의 주님.

39 자비하신 성령.

오 자비하신 성령 생명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예배안 설명]

1. 떼제 공동체의 창조절 기도자료를 신한열 수사님(떼제 공동체)이 번역하여 제공해 주셨습니다.
2. 노래 제목은 신앙과 지성사의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을 참조하였습니다.
3. 노래는 기타 혹은 단순한 악기구성으로 인도자의 시작과 마침을 따라 여러 번 반복합니다.
4. 단순하고 소박한 기도를 위하여 준비된 공간에 작은 십자가, 여러 개의 촛불, 화분에 담긴 꽃이나 식물 등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인도 : 말은이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전하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같이 아멘

□ 여는찬송 |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 2절 정지, 3절 생명

(찬송 부르는 동안, 순서자들이 흙, 물, 씨앗, 초를 들고 입장합니다)

<흙 봉헌>

인도자 창조의 신비를 기억하며 생명의 기반인 흙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말은이가 흙을 제단에 봉헌합니다.)

인도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 2:7)

회 중 주님, 우리는 흙입니다. 일어있던 대지가 따뜻한 봄 햇살에 녹듯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주시고, 주님께서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을 잘 품어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되게 하소서.

<물 봉헌>

인도자 낮은 곳으로 흘러 생명을 살리는 물을 봉헌합니다.

(말은이가 물을 제단에 봉헌합니다.)

인도자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겔 47:8-9)

회 중 주님, 우리는 물입니다. 주님이 내시는 물길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흘러 생명의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씨앗 봉헌>

인도자 복음을 상징하는 씨앗을 봉헌합니다.

(말은이가 씨앗을 제단에 봉헌합니다.)

인도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요 12:24)

회 중 주님, 우리는 씨앗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식물들 같이, 또한 주님 같이, 우리도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빛 밝힘>

인도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전하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며 빛을 밝힙니다.

(말은이가 초에 불을 밝힙니다.)

인도자 하나님께서 주신 흙과 물과 씨앗을 봉헌하고 생명살림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니,

회 중 주님,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의 삶 가운데 망각하고 있던 자연 순환의 질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민한 신앙의 감수성으로 천지에 감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 **생명살림의 찬송** | “찬송가 478장” | 다함께

-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 **생명살림의 기도** | 맡은이

□ **성경봉독** | 요한1서 3장 18절 | 맡은이

“자녀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설교** |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 맡은이

□ 결단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 다같이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류형선 작사, 작곡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의 그 뒤를 따르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

□ 파송의 말씀 | 다같이

인도자 생명살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 천하에 녹색의 희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다같이 우리는 창조세계의 일부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 축도 | 말은이

2024년 환경주일 교회학교 예배자료

환경주일 어린이 설교문 김신형 목사(자연드림교회)

환경주일 어린이 기도문 김진수 총무(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1서 3:18)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건강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건강한 친구들이 함께 해줘야 한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친구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직접 지심으로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예요? 그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양상한 나뭇가지에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예쁜 꽃들이 우리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나무와 꽃과도 인사를 나눈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서로 친구가 된거예요. 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것도 잠시, 뉴스와 휴대폰에서는 우리나라 곳곳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다며 밖에 나가

지 말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뛰어들어다니느라 자연 친구들과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답니다.

여러분들은 스케치북에 산과 들 그리고 하늘을 그린다면 어떤 색으로 칠하고 싶어요? 어느 친구들이 산과 들판을 녹색과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리더니 하늘은 회색으로 색칠을 했대요. 아마도 그 친구들은 푸른 하늘보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가득한 잿빛 하늘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친구들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자연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연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데 말이죠. 친구들을 위해 꽃은 향기를, 나무는 열매를, 새들은 노래를, 동물들은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잠아요.

그런데 요즘 자연 곳곳에서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대요. 우리 몸의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도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열을 내려야 하는데, 요즘 지구의 평균온도가 1.5도 가까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나라에선 비가 너무 많

이 오고 또 다른 나라에선 가뭄으로 산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동물이 살 수 없는 숲,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 꽃이 살 수 없는 땅, 이런 자연에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행복할까요? 푸르름이 없는 잿빛 세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뉴스에 가끔 바다 생물이 해안가로 떠밀려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물고기, 거북이, 새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이 죽은 채로 말이죠.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연구하지만, 결국 대부분은 인간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물고기의 뱃속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고기잡는 그물, 크고 작은 비닐봉지, 플라스틱 조각들,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까지.. 이런 쓰레기들이 왜 물고기와 새의 몸에서 나오는걸까요?

친구들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바다에 놀러가면 쓰레기를 주어왔다고요? 아주 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가에 무심코 버리거나 흘린 작은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바다로 떠내려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해요.

바다로 떠내려간 쓰레기는 바닷속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도록 햇빛을 막게 되고 그 결과 바다의 온도,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높아져서 지구 별에 사는 많은 생명들이 아프게 될꺼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픈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아프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 말이예요.

우리가 쇼핑을 자주 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건물과 공장에서는 더러운 물이 많이 나올꺼예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발전소의 굴뚝에서는 더 많은 연기가 나올꺼예요. 우리가 밥을 남기고 버릴수록 땅이 오염될꺼예요.

우리 때문에 오염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의 탄식이 들리나요?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야 싹이 납니다. 더 중요한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봄이 왔을 때 씨앗을 심어야 꽃이 피고 자라서 가을에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연의 모든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해지기로 해요.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거짓없이 진실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경주일 어린이 기도문

김진수 총무(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하나님, 우리는 알아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 작품이고, 봄의 꽃과 여름의 초록 잎도 하나님 솜씨.
가을의 파아란 하늘과 겨울의 흰 눈도, 바람과 햇살과 비와 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 비는 이상하게도 많이 내리고 왜 숨막히게 더운 날이 점점 늘어나지요?

바다에는 더럽고 위험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하늘에는 까맣고 지독한 것들이 퍼져나간대요.

어른들은 '기후위기'가 어떻고 '핵폐기물'이 어떻고 어려운 말들을 하면서

우리한테 미안해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아플 때 가장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라져가는 작은 동물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병들어가는 들꽃과 함께 눈물 흘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요.

애써 키운 농작물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질 때 함께 슬퍼하시고,

무서운 포크레인에 숲과 강과 갯벌이 망가져 갈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다짐해요.

이 지구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척 하지 않을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할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뤄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 세상을 만들어 갈게요. 우리의 작은 손에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녹색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제41회 환경주일 선언문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창조세계가 죽음의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폭염과 폭우, 한파와 폭설, 지속적인 기근과 꺼지지 않는 산불 등 생태계의 붕괴는 건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약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는 국제사회의 결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탄소 중립은 이룰 수 없는 목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해 보이는 mammon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기후재앙의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대응하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즉시 탐욕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은 우리 삶에서의 실제적인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이 세계에 녹색의 희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보전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십자가를 등에 지고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해 헌신하는 녹색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한국교회가 함께 지켜온 환경주일이 올해로 41년째를 맞이합니다. 제41회 환경주일을 맞아 다시금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정의 실현과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힘쓰는 녹색교회를 확대하고 녹색교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온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탄소배출 100% 감축,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연기반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전환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식, 의, 주, 에너지, 교통, 문화, 경제의 삶 전반을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삶으로 전환하겠습니다.

4. 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및 세계교회와 연대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변화를 촉구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제41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참가자 일동